

성공한 삶



박영호 (다석사상연구회 회장)

소크라테스(Socrates, BC470~BC399년 경)의 제자 안티스테네스(Antisthenes, BC 444~BC365년 경)가 창설한 고대 그리스 철학의 키니코스(kynikos) 학파[견유학파라고도 한다. 자연과 일치되어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 운동, 또는 이를 따르는 철학자들을 일컫는다. 견유(犬儒)라고 번역된 이름은 그리스어로 ‘개’를 의미하는 ‘키노스(Kύνος)’에서 왔는데 ‘개처럼 사는 선비’라는 의미다. 이들은 소크라테스 철학의 극기적인 면을 계승해 덕(德)만 있으면 족하다 보고, 정신적·육체적인 단련을 중요시하여 쾌락을 멀리하고 단순하고 간소한 생활을 했다.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의지의 우월성을 존중했으며 권력이나 세속적인 일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를 원하였고 세계시민으로 자칭하여 헬레니즘 세계로 설교여행을 다녔다고 한다.]의 한 사람인 디오게네스(Diogenes, BC412~BC223년 경)도 소크라테스처럼 저술보다는 행동하는 철인이었다.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재위 BC336~BC323)이 디오게네스의 범상치 않은 인물됨에 호기심이 일어 어느

날 아침에 길가 나무 물통 속에서 자고 있는 그를 만나러 찾아갔다. 알렉산더 대왕은 디오게네스에게 자신이 누구인 것을 먼저 밝히고는 “당신이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터이니 말하라.”고 하자 디오게네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소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당신이 지금 아침 햇살을 가리고 있으니 비켜주소.”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또한 디오게네스는 한낮에 등불을 켜 들고 다니며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햇빛 아래서 등불 하나 더 켜다고 해서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일 까닭이 없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찾았다는 말은 없다. 결국 이러한 디오게네스의 행동은 길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업신여기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디오게네스 자신만이 사람이라는 시위를 한 것일까? 하지만 디오게네스 자신도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수나 석가에 비하면 모자란다. 무소유 정신은 비슷하나 “제나(ego)를 죽이고 일어나로

숫나(거듭나)라.”는 말은 디오게네스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디오게네스에게는 한얼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 디오게네스는 등불을 켜 들고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서 한얼님을 찾아야 한다.

20세기 이 나라의 사상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인물은 함석헌(咸錫憲, 1901~1989)이라는 데 거의 모든 이가 수긍할 것이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이 나라 사람들의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강제하였고 말과 글을 못 쓰게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건국신 천조대신(天照大神) 신물(神物)을 집집마다 방안 벽에 달아놓고 날마다 절을 하게 강제하였다. 그리하여 이 겨레는 나라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민족의식도 잃어버렸다. 일제 말기엔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 1890~1950)를 비롯한 많은 지성인들이 친일(親日)을 하게 된 것도 민족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누

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성천(星泉) 류달영(柳達永, 1911~2004)에게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일제에 의해 「『성서조선』 사건」으로 투옥까지 당하였지만 류달영은 친일인명사전 만드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때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 참혹하였던 극한 상황을 짐작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친일파라고 몰아세워 정죄(定罪)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 죽고 살아남은 것만도 고마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함석헌은 그 일제강점기에서 몇 번이나 투옥되면서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역사(뜻으로 본 한국역사)』를 1934~1935년에 「『성서조선』」에 연재하였다. 그 글도 「『성서조선』 사건」에 무관하지 않다. 이때 류영모도 옥고를 겪었다. 김교신과 류영모는 국가주의에 맞섰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면서도 다석 류영모는 동양의 사상과 기독교와의 접목을 통한 종교 다원주의자라 할 수 있는데 반해, 김교신 등 성서

* 「『성서조선』 사건 : 양정고보·경기고보·송도고보 등에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류달영·윤석중·손기정 등 여러 제자를 길러낸 스승 김교신(金敎臣, 1901~1945)이 함석헌·송두용을 비롯해 일본 유학 시절 동경고등사범학교의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1861~1930) 문하의 동료들과 함께 1927년에 창간한 잡지 「『성서조선』」의 필화(筆禍) 사건이다. 「『성서조선』」은 1942년 3월호에 김교신이 쓴 권두언과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함(弔蛙)」이란 글에 동면(冬眠)하는 개구리의 소생을 비유하여 민족의 소생을 부르짖었다는 구실로 폐간조치를 당하고, 김교신·함석헌·류달영 등 연루자 18명은 1년간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으며, 고정 독자들의 집까지도 수색을 당하여 잡지는 전부 소각됐다. 이는 김교신이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고 성서 중심의 무교회주의(無教會主義)를 주창했던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삶 전체를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지리학자이기도 했던 김교신은 「조선지리소고(朝鮮地理小考)」에서 동양의 고난이 이 땅에 집중된 것은 한반도가 동양의 중심임을 증명하며, 따라서 동양의 가장 고귀한 사상 또한 한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파했다. 일본인 스승의 꿈을 이루고자 한 김교신에 이어서 김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큰 시도를 하게 된 이가 바로 류달영이었다.

조선 그룹의 핵심 멤버들은 기독교 정통신앙에 훨씬 가깝다.] 일관된 시점에서 바라본, 사실상 최초로 쓰인 한국 통사라 할 수 있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뜻으로 본 한국역사)』는 민족의식을 부활시키고 독립정신을 일깨웠다. 함석헌의 나라사랑 겨레사랑은 광복 후 그토록 바라던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던 당시 「사상계」 월간 잡지에 엄정하고 소중한 정치평론을 펼쳐 위정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민중의 심금을 움직였다. 그 뒤로는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이 되어 필화(筆禍)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기개를 굽히지 않아 겨레의 선지자로 우뚝 섰다. 함석헌은 시집 『수평선을 넘어』를 내면서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를 외쳤다. 짐작컨대 그 사람은 함석헌에게 거의 우상적 존재였던 다석 류영모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스승님을 함석헌이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이르러서 한 눈을 파느라 오히려 멀리하였다. 그러니 함석헌이 세상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다. 한마디로 매듭을 짓자면 사람을 내세워서는 모자란다는 것이다. 류영모의 말을 들어본다.

“나 류영모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자(孔子)를 말하는 것은 공자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예수나 공자처럼 톨스토이나 마하트마 간디같이 한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얼(성령) 국물을 먹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비슷하게 그 일을 하려고 말한 것뿐이다. 그들처럼 한얼님이 주시는 얼 국물을 먹지 않았다면 예수, 석가, 공자, 간디를 추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류영모, 『다석어록』)

예수와 석가처럼 제나로 죽고 일어나로 솟내거든 내 일어나로 한얼님과 하나로 이어지면 스승도 필요 없다. 그런데 함석헌은 교회에 나가다가 무교회[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가 주장한 기독교 존재 양식 및 운동인 무교회주의 단체. 우치무라 간조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서일 뿐이며, 교회와 그 관습은 기독교를 담아내는 껍데기”라고 주장했다.]에 나가다가 YMCA[류영모는 YMCA 연경반(研經班)에서 성서를 포함한 동서양 경전을 연구하고 지도했다.]에 나가다가 나중에 퀘이커교[Quake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17세기에 조지폭스(George Fox, 1624~1691)가 창시한 종교 교파로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신성(神性), 곧 하느님의 성품이 있으므로 이를 기르는 법을 배우면 되고,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로 옮겼다. 이것은 함석헌이 아직도 자기 맘속의 일어나를 깨닫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제나를 온전히 죽이지 못해 세상에 한눈을 팔았다. 인격이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 아직 ‘인격 세움(character building)’이 성숙하지 못하였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한얼님의 얼(성령)을 깨닫지 못한다.”(요한 16:7)고 하였다.

지난날 스승 류영모가 필자인 나 박영호에게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편지도 하지 마시오. 이를 단사(斷辭)라 해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허를 깨물며 스승 류영모를 찾지 않고 편지도 안 하기를 10년 동안 지내며 『새시대의 희망』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하였다. 그것을 읽은 스승이 필자에게 ‘마침 보람(졸업증)’을 보내주었다. 이것은 스승이 제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스승이 꼭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졸업장만 주어 떠나보내

고 있으니 교육은 받았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만 넘친다. 탐진치(貪瞋癡)의 수성(獸性)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미성년의 미성숙(immaturity)인 것이다.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 8:31~32)고 하였다. 예수의 이 말을 바로 알아들어야 한다. 예수가 가르친 알맹이는 짐승인 제나로 죽고 한얼님 주시는 얼나로 솟나라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의 말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얼나를 깨닫는다는 것이다. 얼나를 깨달으며 제나의 수성(獸性)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 수성의 종이 아닌 한얼님 아들이 되어 한얼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나로 죽고 얼나로 솟나지 못하였으면 한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짐승(멸망의 생명)에 지나지 않는다.

류영모의 말이다.

“지극히 높은 데 계시는 온전한 한얼님 아버지께로 가자는 게 예수의 인생관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이러한 인생관을 갖고 싶다. 이런 점에서 예수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지 이밖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걸 신앙이라 할지 어떨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어떨지 나는 모른다. 사람은 분명 짐승인데 짐승의 생각을 하지 않음이 얼 사람으로 솟나는 우리의 길이다.”(류영모, 『다석어록』)

예수는 분명히 말하였다. “영원히 사는 것은 얼나이니 아버지가 낳아준 몸나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이른 말은 영원한 생명

인 얼나이다.”(요한 6:63, 박영호 의역)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 죽었지만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제나로 죽고 얼나로 영생하는 예수, 석가이다. 제나로만 살면서 높은 벼슬을 하거나 많은 재물을 모으거나 이름을 날린 명사가 된다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가까이 예수, 석가처럼 제나로 죽고 얼나로 산 이들의 인생 평가를 들어본다. 이들은 하나같이 죽음의 제나에서 영생의 얼나로 생명 혁명을 한 이들이다.

“성공적인 삶의 증표는 사람으로서 부드러움과 성숙됨의 자람이다. 짐승인 제나로 살면서 어찌 사람답다고 하겠는가? 몸과 맘의 제나가 얼나의 뜻을 좇지 않으면 사람답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나의 죽음에 얼나의 승리가 있다. 사람은 한얼님을 참나로 깨달아 제나에서 나오는 이기심과 공포심을 없애 버려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날마다의 명상』)

“만일 우리의 밤과 낮을 항상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한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꽃이나 풀처럼 그윽한 향기를 발한다면 또한 우리의 삶이 지극히 부드럽고 아름답다면 그리고 영원에 이른 참이라면 당신은 틀림없이 성공한 삶을 산 것이다.”

(소로우, 『소로우의 일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오관(五官) 사지(四肢) 몸 밖에 모른다. 그리하여 몸뚱이가 미끈하게 잘 생긴 사람을 부러워한다. 사람이 몸이 참나인 줄로 알고 몸에 사로잡히면 이 짐승이 몸의 욕망에 잡아먹힌다. 이 짐승(몸)의 수욕(獸欲)을 좇지 말

고 한얼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인 얼나의 뜻을 좇아야 한다. 가짜 생명이 몸나(제나)는 죽어야 한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자는 것도 멸망이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짜 생명인 몸뚱이를 연명시키는 데만 궁리하고 골몰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 사는 것이다. 바로 사는 길은 사람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제나의 죽음과 얼나의 깨달음은 인격을 성숙시켜 한얼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한얼님 아들이란 사람이 제나를 넘어선 얼나이다. 제나의 지식에 사로잡힌 이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이다. 미성년은 탐진치(貪瞋癡)인 삼독(三毒)의 수성(獸性)에 이끌려 부끄럼도 모른 채 짐승 노릇하는 때를 말한다. 죽음이란 몸나(제나)의 멸망이요 진리정신인 얼나의 승리이다. 그래서 예수는 진리(한얼님)를 모르는 짐승 무리에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태연하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 16:33)고 말하였다.

(류영모, 『다석어록』)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우주이시며 우주의 임자이신 없이 계시는 한얼님을 생각하러 온 것이다. 예수는 산속에 들어가서 한얼님을 생각기도하였고 석가는 나무밑에서 한얼님[닐바나님]을 생각[선정]하였다. 한얼님을 생각하는 것이 명상(冥想)이다. 한얼님을 생각하지 않는 명상은 명상이 되지 않는다. 잡념이 될 뿐이다. 예수 석가도 사람들에게 한얼님을 생각한다고 말하지 예수 석가를 생각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온통[전체] 앞에는 아무리 위대한 날동[개체]도 있을 수 없다. 임제 의현(義玄, ?~867) 선사처럼 “도(道)를 닦는 사람들이여 그대들 진리(法)다운 생각에 이

르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미혹(人惑)되어서는 안 된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마주치는 무언가는 모두 끊어 죽여버려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祖師)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阿라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야 해탈할 수 있다. 일체 사물에 걸리는 바 없이 철저한 해탈 자재(解脫自在)의 경지를 얻는 것이다(임제록).” 제나로 죽어 없어져 닐바나님께 들면 저절로 만물이 없어지는데 일부러 죽이려고 할 까닭이 없다. 닐바나님이 온통[전체]이기 때문이다. 석가의 닐바나님이나 예수의 아버지 한얼님이 다른 것이 아니다. ●